

제12호(2016. 5. 3.)

쇠고기 자급률 동향과 전망

우병준 이형우



1. 문제제기	1
2. 한우 도매가격과 쇠고기 수입 동향	2
3.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자급률 동향 및 전망	3
4. 시사점	5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감 수	정민국 선임연구위원	061-820-2263	mkjeong@krei.re.kr
내용 문의	우병준 연구위원	061-820-2378	bjwoo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 선임전문원	061-820-2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현안분석」은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요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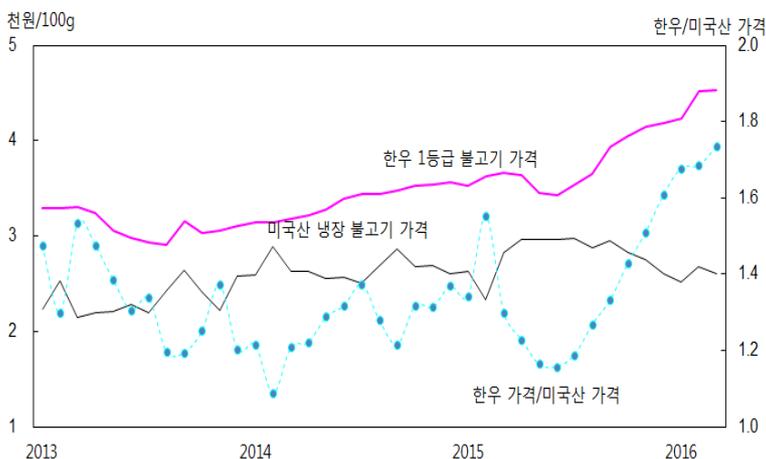
- **한우고기와 수입육의 가격격차 확대로 쇠고기 자급률 하락에 대한 우려 제기**
 - 지난 2월 말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높은 한우가격으로 수입육 소비가 늘어나 자급률이 2013년 50.1%에서 올해에는 40%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
 - 4월 1일 자 축산신문 “한우 자급률 하락 현실화되나”에서는 한우고기와 수입육과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자급률 하락 현실화에 대한 우려 보도
- **국내 생산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강세, 쇠고기 수입량 크게 증가**
 - 한우 도축 마릿수가 전년보다(17.8%) 감소하여 올해 1/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0.1%, 평년 대비 32.3% 상승한 18,414원/지육kg
 -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1/4분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5.1% 증가, 평년 대비 19.6% 증가한 7만 8천 톤(검역검사 기준)
- **한육우 사육 마릿수 2012년 정점 이후 감소 지속, 국내 생산 감소로 자급률 하락**
 -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9월 최대 31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3월 260만 마리까지 감소
 - 2013년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50.1%를 기록한 이후 국내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로 2015년에는 46.2%까지 하락
- **국내 생산량 감소세 2019년까지 이어져 국내산 자급률 38.8%까지 하락 전망**
 - 국내 생산량이 감소국면에 있으며, 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
 - 이러한 자급률 하락세는 2019년을 저점(38.8%)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40%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
- **한우고기 소비와 사육기반 유지 노력 필요, 한우 농가 암소번식 기반 확대해야**
 - 지난 2011년 이후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,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, 급식, 군납 등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, 최근에는 홍콩으로의 고급육(1+등급) 수출 등 한우고기에 대한 신규 수요처 창출
 - 그러나 암소 번식기반 약화 등으로 한우 소비 증가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 필요
- **소규모 번식 농가 폐업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방안 모색**
 - 암소감축사업, FTA 폐업지원 등으로 소규모 번식 농가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,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모색 필요

1. 문제제기

□ 한우고기와 수입육의 가격격차 확대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에 대한 우려 제기

- 축산물 등급제 시행¹⁾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, 수입 개방²⁾ 이후 쇠고기 수입량 또한 역대 최고 수준임.
 -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동향과 향후 전망 검토 필요
- 지난 2월 말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높은 한우가격으로 수입육 소비가 늘어나 자급률이 2013년 50.1%에서 올해는 40%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.
- 4월 1일 자 축산신문 “한우 자급률 하락 현실화되나”에서는 한우고기와 수입육과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자급률 하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보도
 - 한우 1등급 불고기 가격/미국산: '15년 5월 1.16배 ⇒'16년 3월 1.74배

그림 1. 한우 1등급 불고기와 미국산 불고기 소매가격 추이



자료: 축산물품질평가원.

1) 우리나라는 소·돼지고기에 대해 1993년에 등급판정을 적용하였음.
 2) UR 협상결과, 1994~2000년 쇠고기 수입량은 쿼터로 제한되었으며, 2001년부터 관세율(41.2%)을 부과하면서 쇠고기 수입은 전면 자유화되었음.

“
 한우고기와 수입육
 가격격차 확대로
 쇠고기 수입량이
 증가하여 국내산
 자급률 하락 우려
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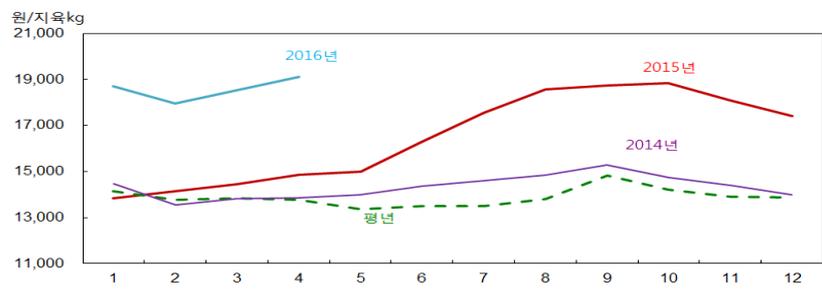
“
한우 도매가격 강세,
쇠고기 수입량 급증
”

2. 한우 도매가격과 쇠고기 수입 동향

□ 국내 생산량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강세

- 한우 도축 마릿수가 전년보다(17.8%) 감소하여 올해 1/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0.1%, 평년³⁾ 동기 대비 32.3% 상승한 18,414원/지육kg임.
 - 1등급 평균 도매가격: 18,414원, 전년 14,150원, 평년 13,919원

그림 2.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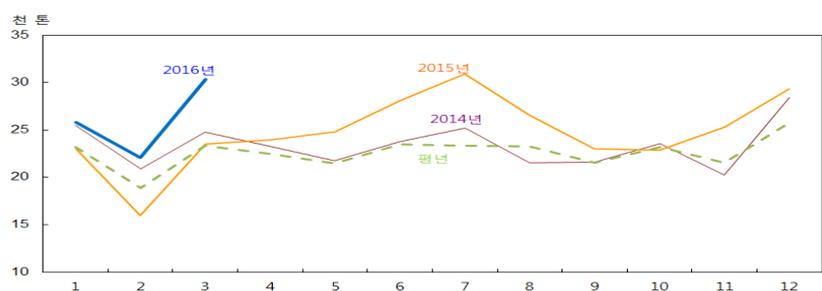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축산물품질평가원.

□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쇠고기 수입량 크게 증가

-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올해 1/4분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.1% 증가, 평년 동기 대비 19.6% 증가한 7만 8천 톤(검역검사 기준)임.
 - 1~3월 쇠고기 수입량: 78천 톤, 전년 62천 톤, 평년 65천 톤

그림 3. 쇠고기 수입량 동향

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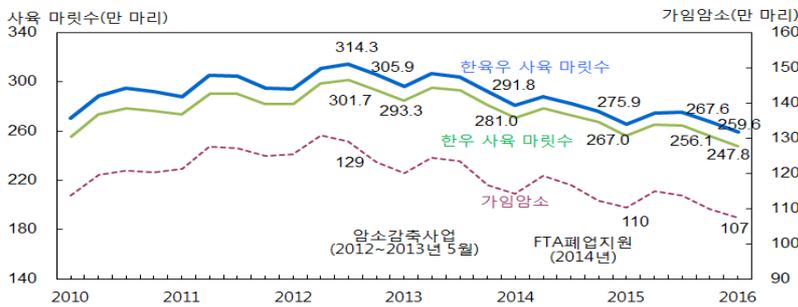
3)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평균임.

3.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자급률 동향 및 전망

□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정점 이후 감소세 지속

-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9월 최대 31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
 - '12년 12월 306만 마리 ⇒ '13년 292만 ⇒ '14년 276만 ⇒ '15년 268만 ⇒ '16년 3월 260만 마리까지 감소

그림 4.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



자료: 통계청

“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및 수입량 증가로 자급률 하락 ”

□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내 생산 또한 감소,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져

- 2013년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50.1%를 기록한 이후 국내 생산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2015년에는 46%대로 하락함.
 - 쇠고기 자급률: '10년 43.2% ⇒ '13년 50.1% ⇒ '15년 46.2%

표 1. 쇠고기 수급과 국내산 자급률 추이

구 분	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 ²⁾
공급	전년 이월	-	-	-	2	-	-
	생산	186	216	234	260	261	256
	수입	245	289	254	257	280	297
	계	431	505	488	519	541	553
수요	국산소비량	186	216	234	260	261	256
	수입소비량	245	289	252	259	280	297
	차년 이월	-	-	2	-	-	-
	계	431	505	488	519	541	553
총 소비량		431	505	486	519	541	553
자급률(%) ¹⁾		43.2	42.8	48.2	50.1	48.1	46.2
1인당 소비량(kg)		8.8	10.2	9.7	10.3	10.8	10.9

주 1) 자급률 =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/쇠고기 총 소비량

2)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

“
2019년까지 국내산
자급률 하락한 후
회복세로 전환되나
40%대 초반에
머물 것으로 전망

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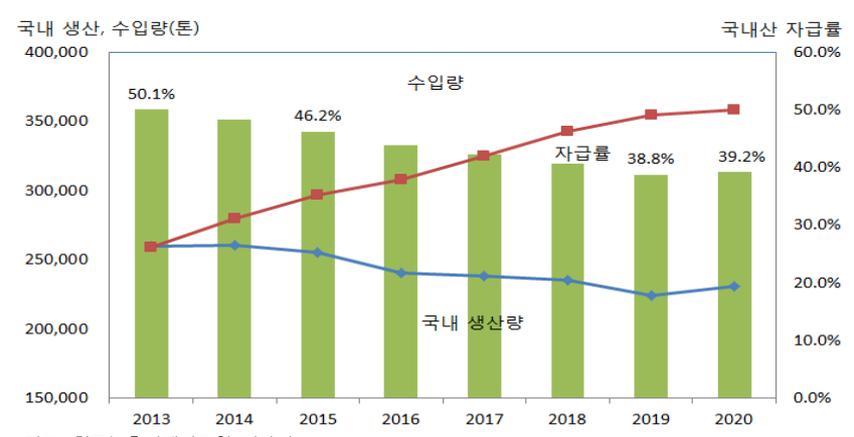
□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세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

- 2세 이상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의 268만 마리보다 1.9%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됨. 사육 마릿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(농업전망 2016)
-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9년에 22만 5천 톤까지 감소한 후 2020년이 지나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
-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와의 FTA 이행으로 관세율이 하락하여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. 2016년 이후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 2019~2020년에는 35만 톤 내외로 예상됨.
 - 미국산 관세율: '16년 26.7% ⇒ '17년 24.0% ⇒ '20년 16.0%
 - 호주산 관세율: '16년 32.0% ⇒ '17년 29.3% ⇒ '20년 21.3%

□ 쇠고기 자급률 2019년에는 38.8%까지 하락 전망

- 국내 생산량이 감소국면에 있으며, 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함. 자급률 하락세는 2019년에 저점을 보인 후 반등할 것으로 보이거나 40%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.
 - 쇠고기 자급률: '15년 46.2% ⇒ '16년 43.8% ⇒ '19년 38.8%

그림 5.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전망

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.

4. 시사점

□ 사육 마릿수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강세 전망

-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이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.

□ 2019년까지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

- 국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와 함께 미국과 호주와의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여 2019년까지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□ 한우고기 소비와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암소 번식 기반 확대해야

- 지난 2011년 이후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,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, 급식, 군납 등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, 최근에는 홍콩으로의 고급육(1+등급) 수출 등 한우고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됨.
 - 2015년 12월~2016년 3월 말까지 대홍콩 한우고기 수출량은 5.3톤 (2015년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25만 6천 톤)
 - 한우고기 수출 대부분이 1+등급 등심, 안심 등 고급육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, 이는 유통업체 특정 부위(등심, 안심 등) 적체 해소로 한우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함.
- 그러나 암소 번식기반 약화 등으로 한우 소비 증가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 필요

□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모색

- 암소감축사업, FTA 폐업지원 등으로 소규모 번식 농가의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됨.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모색 필요

“

한우고기 소비와
사육기반 유지를 위해
암소 번식 기반을
확대해야

”

KREI 현안분석 제12호

쇠고기 자급률 동향과 전망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.)
인 쇄 2016. 5. 3.
발 행 2016. 5. 3.
발 행 인 최세균
편집위원 최지현, 우병준, 김수석, 김용렬, 조미형, 한석호, 문한필
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우)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
대표전화 1833-5500 <http://www.krei.re.kr>
인 쇄 (사)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
02-2269-5523~4 dec5523@hanmail.net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